

SERMON 16 JULY 2017

씨앗은 특별한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삶을 소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물을 찾아 땅 속으로 파고들어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씨앗은 위로 향하여 새싹을 내밀기 시작하고, 빛을 향해; 형태를 남기고 펼쳐지기 시작하고, 빛에 반응하며, 식물이 형태를 취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창조하고 DNA 에 포함되도록 형성합니다. 겨자 씨와 같은, 하나의 작은 씨앗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의 재료들이고 씨앗이 없는 인간의 삶은 흔들릴 것이고 세상은 색깔, 아름다움, 그리고 영양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 중 많은 정원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 낮과 밤에도, 아직도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석조와 나무 건물에 앉아 있는 우리는 농장과 시골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언덕과 관목을 거닐었던 사람들은 나무와 관목과 식물의 성장과 생명체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와 모든 백성들은 그 땅과 모든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이 농작물, 동물, 빵, 물, 포도주, 그리고 허브와 과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생존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서 군중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어려운 사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유들과 연관되어 있을 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호수 근처의 밭에 농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 다닐 때 손에 가득 쥘 씨앗을 마구 뿌리고 사방으로 흩뿌렸을 것입니다. 이 농부를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보기에 관심 없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 떨어지든 내버려 둡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작물을 키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몇 분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실 것 입니다. 오직 일부만이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하리만큼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풍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 그렸던 그림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그림을 기억하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들었던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 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하"의 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설명하셨고 마태는 기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토양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저런 시간과 상황에 의해 우리가 메마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과 창조성을 느낄 때 성장할 만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 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고, 우리는 선한 것과 진실이 활짝 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개인적인 반응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운, 씨앗, 예수님께서 그 때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로서 인자의 아들 이라고 언급 될 때, 사실상, 이것은 세상의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그의 땅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씨를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작위적으로, 널리 멀리 관대하게 퍼져 있습니다. 엄선된 토양에 심어져 있으며 조심스럽게 잘 정돈되어 있는 종자에 대한 선별적인 대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씨앗, 말씀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비록 많은 양의 농작물이 수확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않은 곳은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건 없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거나, 기다리고, 휴면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스러운 토양에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더 많은 지면이 준비되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밖에 있습니다. 좋은 토양의 목적은 미래의 산란을 위해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강한 식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유의 요점은 우리의 상상력을 장려하는 것이지, 엄격한 세부 사항이나 공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 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공간과 햇빛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비유는 삶의 번잡함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으며, 우리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많은 말다툼이 있었지만 그 단어를 억누를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거기 밖에 서도 배울 것 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작은 범주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작품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고 우리의 땅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씨앗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이 이미 이 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고,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씨앗들은 어떻게 자라도록 격려되나요? 그것은 큰 삽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몇몇 종파들의 압력은 회심에 특별한 강조를 둡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이미 속삭이고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종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청취자입니다. 40 년간 북 인도 선교사로 지내온 현명한 옛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처음으로 북 인도로 떠나는 젊은 사역자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거기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매우 많은 방법으로 발견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그가 뜻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 했거나 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그들의 삶을 감동시켰고, 희망의 씨앗과 가능성이 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봉독에 구절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모호하게 보이고 우리를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예언자 이사야와 관련된 구절 들로, "그들이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요? 그것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를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자로서 예수를 그려 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자이며, 그는 여기, 지금 존재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자신 스스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에 살고 있는 비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방식, 새로운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진정한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십니다. 성장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힘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한 "내가 하지 않은 좋은 일" 말씀의 진실성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John Bell and Graham Maule 에 의해서 작곡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는 혼자서 식사를 합니다. 주 예수님 귀 기우려 주세요, 저도 역시 외롭습니다. 당신을 기다림으로, 친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저는 제가 Edinburgh (에딘버러) 빈민가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노숙자 주택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들곤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으로서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살았고 Save the Children Fund 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또는 알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것 보다 도 그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중요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느끼는 좋은 장소와 그 이상의 어려운 곳 사이에 정말로 그러한 격차가 벌어질까요? 그것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즐거움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서로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 그 단어는 정의와 은혜와 온전함의 방법 들을 발견하는 상상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수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들을 수 없거나 명확하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에 일부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